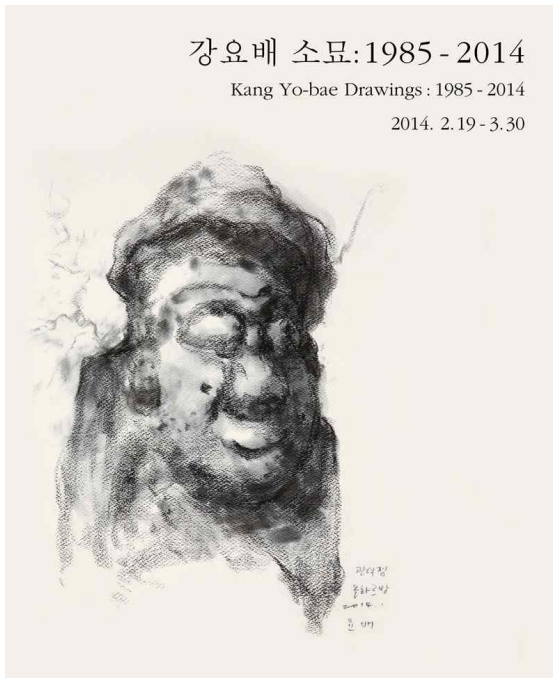


강요배 소묘: 1985-2014

Kang Yo-bae Drawings: 1985-2014



전시명 : 강요배 소묘: 1985-2014

Kang Yo-bae Drawings: 1985-2014

일 시 : 2014년 2월 19일(수) - 3월 30일(일) 40일간

장 소 : 학교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1. 전시 개요

학교재갤러리는 2014년 봄을 맞이하며 강요배 소묘: 1985-2014를 개최한다. 1980년대 작가의 초기작부터 최근작까지 30년에 걸친 소묘 70여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강요배의 드로잉만을 한 공간에 모아 대대적으로 선보이는 첫 전시이며, 작가의 작품세계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드로잉은 작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순수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독립된 회화 예술로서 가능성이 꾸준히 탐구되고 있다. 80년대 삽화가로 활동하기도 했던 강요배는 수많은 소묘작업을 통해 작가의식과 작품세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제주출신인 강요배는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정주처를 찾아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을 때에 바닷가와 들뜬에서 풀꽃과 풍경들을 스케치하며 온몸으로 고향 땅을 느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섬 땅의 자연은 그의 마음 속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소묘는 강요배의 큰 테마인 민중성과 리얼리즘의 근간이자 토대가 된다.

강요배의 드로잉은 낭만적 재해석과 같은 조형적 변주 없이 대상의 존재 자체를 덩덤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자 하며, 이러한 그의 소묘는 오히려 관객에게 더 큰 의미를 읽어낼 계기를 부여한다. 이 전시는 강요배의 드로잉이 주는 담백하고 꾸미지 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전시 구성



관덕정 돌하르방 Kwanduk-jung Dol Hareubang,
2014, Conte on paper, 54x3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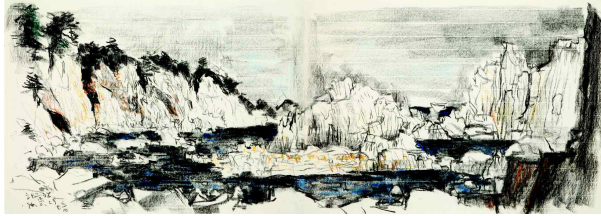
돌하르방 작품은 강요배 고유의 압축 방식, 침묵과 생략의 방식을 통해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인문을 만끽하게 한다. 작가는 ‘거친 자연에 인고하는 사물을 통해 스스로 사는 방식을 터득해 왔다’고 회고한다. 바람 속에서 인고하며 늘 그 자리에 있는 돌하르방이 산만한 세계의 모습에 일정한 좌표를 형성해주며 떠도는 삶에 지쳤다면 불박인 자로서의 시간을 살아보라고 스스로 사는 방식을 암시해주는 듯 하다고 말한다.

온화하게 표현된 돌하르방의 모습을 통해 돌하르방을 직접 마주한 그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소슬바람 The Winds of Autumn, 2010,
Acrylic and persimmon tree leaves on canvas,
162x130cm

소슬바람은 화사의 뜰에 떨어진 감나무 잎들을 캔버스에 고착한 작업이다. 이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강요배의 매체에 대한 실험성을 보여준다. 이는 작가의 그림이 자연의 외관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실체를 탐구하고 그것을 새로운 차원의 의미구조로 변주시키는데 있음을 보여주는 증좌이다. 이 작품에서 주제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구도·색채·질감 같은 형식적, 미적 효과에의 탐닉이다. 그는 감나무 잎들을 음악적 하모니를 이루듯 부드럽게 배치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소재와 형태의 의미 대신 비형태의 형식과 침묵이 그 자리에 들어섰다. 말이 되어질 수 없는 것, 순수한 회화 그 자체에 작가는 점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금강 Haegumgang Seashore, 1998,
Charcoal and pastel on paper, 39x108cm

1998년 강요배는 금강산과 평양지역 문화유적의 답사를 다녀왔다. 이는 분단 이후 첫 화가의 금강산 사생 케이스라 할 수 있다. 강요배는 1990년대에 들어 제주 4·3의 역사를 끌어안으며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주의 풍경을 그려왔다. 제주 섬땅의 역사와 자연, 바람과 꽃을 그리던 강요배가 이번에는 금강산의 물과 돌을 만나 분단의 아픔을 화폭에 담아냈다.

이 미술기행 기간 동안 그가 가장 신바람나게 그림을 그린 곳이 바로 해금강이었다. 늦여름이었지만 하늘만은 초가을처럼 맑았던 그 날의 풍경을 종이 위에 옮겼다. 해변의 암벽과 해만물상이라 불리는 바위에 솟은 바위들을 늘어놓아 그런 분위기를 적절히 연출해 놓은 작품이다. 오른쪽 해금강문 바위에 짙은 그늘을 강하게 대비시켜 해만물상의 젓빛 바위들을 도드라지게 하였다.



봄 Spring, 1985, Pencil on paper, 33x23cm

창문여고의 실험적 미술 교육 활동, 삽화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펴냈던 『제주도 이야기』 등 여러 권의 어린이 도서 삽화, 그리고 이 작품과 같은 드로잉과 지판 작업들이 1989년 대서사극 『동백꽃지다』 작업으로 알려지기 전의 작업내력이다.

어떤 단일한 형상을 통해 인간 삶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면과 정서들을 응축하고 집약하는 능력,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인물의 형상 속에 복합적이고 풍부한 감정이나 사회적 연관 관계를 집약시킨 능력은 강요배의 회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다. 그는 오직 객체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싶어 한다. 거기에서 서정, 낭만, 아름다움, 역사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서려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화가의 몫이라는 소견이 저변에 깔려있다.

등을 관객에게 보이고 있는 한 여자와 어둡게 형태만 표현된 한 여자가 배경마저 생략된 채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관객은 구체적으로 묘사된 장면을 대할 때 보다 더 복합적인 감성을 읽어낼 수 있다.

3. 전시 서문

‘그림’이란 무엇인가?

강요배

‘그림’은 미술과 다르다. 미술은 그 행위 방식이 훨씬 폭넓고 다양하다. 현대 생활의 다채로움과 미술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 미술은 이제 시각문화 전반에 걸쳐 작동한다.

‘그림’은 미술의 한 방식이고, 그것의 핵심적 부분이긴 하지만 보다 더 특수하다. 미술을 한다는 것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혼동이다.

평면 작업이라면 ‘그림’일까? 이 둘 또한 비슷하긴 하나 사진을 찍는 일을 ‘그림을 그린다’고 하지 않듯이 ‘그림’은 평면작업보다 더 특수하다. ‘회화’라는 한자말이 있다. ‘회화’는 우리말 ‘그림’과 가장 가깝다. 선을 긋고 색을 칠한다면 ‘그림’일 것이다. 드로잉과 페인팅을 ‘그림’이라 하듯이.

그런데 ‘그림’이라는 말에는 조금 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싶고, 또 그리는 행위에는 어떤 마음 같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스며 있다. 어느 정도 평평한 곳에 몸을 써서 마음을 나타내려는 의지가 있다. 몸을 통해 흐르는 마음 같은 것이라 해야 하나.

그렇다면 마음이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속 마음’, ‘마음속’하고 말하듯이 몸 안에 있는 것인지, 밖에 있는 무언가에 대한 지향인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인지, 점차 형성되어가는 그 무엇인지가 뚜렷지 않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한 탁월한 비평가의 비유대로 아직은 모호한 어떤 마음을 낚는 일인지 모른다. 이 낚음질에는 먼저 평정한 상태와 미끼가 필수적이다. 미끼란 외부 사물·생각거리 등 이른바 소재들이다. 미끼는 목표물이 아니다. 그것을 다루는 방식, 낚아 올리는 방식, 요리해 내는 방식을 통하여 마음은 드러날 것이다.

이 방식들이야말로 ‘추상화’과정이 아닐까? 어떤 것들은 사상하고 가장 강력한 것. ‘바로 그것’을 뽑아 올린다. 그러므로 ‘추상화’는 명료화 과정이다(애매모호하게 흐리거나, 기하 도형을 반복하거나 하는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마침내 ‘그림’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림’은 미술로부터 뛰어 오른다.

2014. 1

4. 작가 약력

강요배

- 1952 제주출생
197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졸업
제주에서 거주 및 작업

개인전

- 2014 강요배 소묘: 1985-2014,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3 강요배, 학교재갤러리, 서울
2011 풍화, 제주 돌 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제주
2009 강요배의 습작시절, 제주교육박물관, 제주
2008 스침, 학교재갤러리, 서울
제주 4·3 평화기념관 개관기념 특별전: 강요배의 4·3 역사화 - 동백꽃 지다, 제주4.3평화 기념관
예술전시실, 제주
2007 섬 빛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 제주
2006 땅에 스민 시간, 학교재갤러리, 서울
강요배,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2003 강요배, 학교재갤러리, 서울
1999 금강산, 아트스페이스 서울, 서울
1998 4·3 50주년 기념 동백꽃 지다 순회전, 학교재갤러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송원갤러리, 광주;
가톨릭센터 전시실, 부산; 월성 문화관, 대구
1995 섬 땅의 자연, 조현화랑, 부산
1994 제주의 자연, 학교재갤러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1992 제주 민중항쟁사, 학교재갤러리, 서울; 세종갤러리, 제주; 단공갤러리, 대구
1976 각(角), 대호다방, 제주

단체전

- 2014 인도네시아-한국 작가 기획전: 낮은 흐름,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2013 섬,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두 섬의 확정,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토니라카 갤러리, 발리, 인도네시아
제20회 4·3 미술제, 제주 4·3 평화기념관, 제주
충북민족미술 아트페스티벌 - 현실미술과 미술의 시대정신, 우민아트센터, 청주
풍경 - 그림을 그린다든 것,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2012 제4회 제주 - 일본 신화미술 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제19회 4·3미술제: 식구, 제주4·3평화기념관, 제주

- DMZ 평화미술+ 책프로젝트 - 겨울 겨울 겨울, 봄, 경기도미술관, 안산
- 모성 - 한국 미술 속의 어머니,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울
- 2011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대지의 꿈, 인사아트센터, 서울
- 제7회 제주신화전: 깊고 깊은 시선, 제주문화포럼, 제주
- 제4회 제주 - 일본 신화미술 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사야마이케 박물관, 오사카
- 탐라미술인협회 2011 기획전 - 구름비가 운다, 아트스페이스 씨, 제주
- 공존 그리고 상생,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2010 현실과 발언 30년 - 사회적 현실과 미술적 현실, 인사아트센터, 서울
- 제3회 제주 - 일본 신화미술교류전: 신화의 기억을 나누다,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화산섬 제주의 삶, 풍경,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우에노모리 미술관, 도쿄
- 노란 선을 넘어서, 경향갤러리, 서울
-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 전, 63스카이라트 미술관, 서울
- 한국 드로잉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 2009 제주 세계자연유산 특별전 - 자연의 신화,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2009 평화 미술제 - 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아시아 그리고 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전주
- 2008 오늘의 한국미술 - 미술의 표정,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제10차 탐사르총회 기념 특별전,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민중의 고동: 한국 미술의 리얼리즘 1945-2005, 반다이지마 미술관, 니가타;
-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미야코노조 시립미술관, 미야코노조; 오오타니 기념미술관,
- 니시노미야; 후츄 시립미술관, 후츄, 일본
- 2007 코리아 통일 미술전, 부산민주공원, 부산
- 남해안 비경 베스트100선,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거제문화예술회관, 거제
- 제14회 4·3미술제: 다시 그 곳에 서서,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신화를 삼킨 섬 - 제주 풍광,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2005 제주 - 발리, 토니라카 갤러리, 발리
- 발리 - 제주,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길에서 다시 만나다, 부산 민주공원, 부산; 광주5·18기념 문화관, 광주; 태백 문화관, 태백;
-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 서울 아트센터 공평갤러리, 서울
- 제12회 4·3미술제: 동행,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2004 제13회 제주미술제: 열린 시공을 향한 제주형, 탐라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당미술관, 서귀포
- 바람의 신화 2004 - 제주현대미술전,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정물예찬, 일민 미술관, 서울
- 선언 - 평화를 위한 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길에 관한 명상,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제6회 제주 - 충북 문화예술교류행사: 생명, 평화, 기당미술관, 서귀포
- 제11회 4·3미술제: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길을 만나다,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2003 제10회 4·3미술제,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진경(眞景) - 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깊은 - '그림', 대안공간 풀, 서울
- 탐라미술인협회 10주년전, 신산갤러리, 제주

- 1901년 제주항쟁기념 역사미술전,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 2002 제9회 4·3미술제: 테러,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바람 땅, 구름 뒀, 충북 문예회관, 청주
민족미술 20년,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
지금 그 사람, 세종 갤러리, 제주
제비울 미술관 개관전, 제비울 미술관, 과천
- 2001 제8회 4·3미술제: 한라와 무등 - 역사의 맥,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목 긴 청개구리, 갤러리 제주아트, 제주
생명으로의 초대, 학교재갤러리, 서울
4·3과 노근리, 청주문화원, 청주
기초/전망, 서울 미술관, 서울
풀, 대안공간 풀, 서울
제13회 조국의 산하 - 바람 바람 바람, 광화문 갤러리, 서울
아름다운 생명, 예술마당 솔, 대구
- 2000 광주 비엔날레 - 예술과 인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해양 미술제2000 - 바다의 촉감,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서울
제7회 4·3미술제,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물길 고갯길 사람의 길,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2000년 제주의 풍속화, 세종갤러리, 제주
- 1999 제6회 4·3미술제: 보이지 않는 손, 보는 눈,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제주미술 - 맑은 바람, 세종갤러리, 제주
- 1998 우리 들꽃, 갤러리 사비나, 서울
제5회 4·3미술제,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잘못된 만남, 갤러리 사비나, 서울
- 1997 제4회 4·3미술제,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한국의 미를 찾아서, 갤러리 사비나, 서울
기당 미술관10주년 전, 기당미술관, 서귀포
- 1996 전통과 현실의 작가 17인, 학교재갤러리, 서울
제3회 4·3미술제, 세종갤러리, 제주
실크로드 미술기행 - 사라진 제국의 숨결을 찾아서, 동아갤러리, 서울
동시대 작가,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제8회 조국의 산하 - 강,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1995 광주 비엔날레 - 광주5월 정신 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광주 통일미술제, 망월동 묘역, 광주
해방50년 역사미술전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2회4·3 미술제, 세종갤러리, 제주
9인 작가초대전, 제주아트갤러리, 제주
역사의 지층 - 현실의 꽃, 세종갤러리; 제주아트갤러리, 제주
- 1994 민중미술15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동학100주년 기념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주미술 - 맑은 바람, 세종갤러리, 제주
제1회 4·3미술제, 세종갤러리, 제주
- 1993 코리아 통일미술, 센트럴미술관 아넥스, 도쿄
제3회 제주미술제,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 그 후 십 년, 덕원갤러리, 서울
- 1992 제2회 제주 미술제, 제주도 문예회관, 제주
오늘의 삶, 오늘의 미술, 금호미술관, 서울
90년대 우리미술의 단면, 가람화랑; 갤러리 상문당; 학교재갤러리; 현 갤러리, 서울
- 1991 우리 시대의 표정 - 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18인전, 서울미술관, 서울
- 1990 젊은 시각 - 내일への 제안,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교육현장, 그림마당 민, 서울
현실과 발언 10년, 관훈미술관; 그림마당 민, 서울
우리시대의 표정 - 인간과 자연, 그림마당 민, 서울
새벽의 숨결 - 동향과 전망, 서울미술관, 서울
- 1989 민족미술자리매김, 그림마당 민, 서울
조국의 산하, 그림마당 민, 서울
더불어 사는 삶, 예술마당 금강, 서울
삶의 터전을 되살리는 서화·도예, 그림마당 민, 서울
현대미술 - 새로운 시각, 세종갤러리, 제주
- 1988 한반도는 미국을 본다, 그림마당 민, 서울
- 1987 반고문, 그림마당 민, 서울
- 1986 JAALA, 일본 도쿄도 현대미술관, 도쿄
우리시대 30대 기수, 그림마당 민, 서울
- 1985 을축년 미술대동잔치, 아람문화원 미술관, 서울
- 1984 삶의 미술, 관훈미술관, 서울
6·25 전, 아람문화원 미술관, 서울
해방40년 역사, 대학 순회 전시
- 1983 시대 정신, 제3미술관, 서울
- 1982 젊은 의식, 덕수미술관, 서울
행복의 모습, 덕수미술관, 서울
- 1981 도시와 시각, 롯데화랑, 서울
현대미술 워크숍 기획전, 동덕아트갤러리, 서울
- 1981-90 현실과 발언
- 1980 12월 전, 덕수미술관, 서울
관점미술동인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 1977-80 제1-9회 관점, 대호화랑, 제주

수 상

- 1998 민족 예술상,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소 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學古齋

110-200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50
50 Samcheong-ro, Jongno-gu, Seoul, Korea
T +82 2 720 1524-6 F +82 2 720 1527
info@hakgojae.com www.hakgojae.com

Hakgojae
Gallery

학교재갤러리 보도자료 2014.02.19

미술은행, 과천